

## 세미나·문화행사 어우러진 한마당

### 한국차학회 제17회 국제 차학술 심포지엄



▷10월19일 성신여대 잔디운동장에서는 200여명의 차인이 모여 차 한잔을 나누는 두리차회가 열렸다.

창립 9주년을 맞은 한국차학회(회장 천병식)가 지난 10월 18-20일 제17회 국제 차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차학회가 주최하고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학술심포지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차례법 학술발표회'와 그림전 '조선시대의 한국화에 나타난 한국의 다례', '한국 명장들의 차기구 전시회', '차꽃 사진 전시회', 두리차회 등의 행사가 펼쳐져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학술심포지엄=18일 오전 9시, 이른 시간이지만 성신여대학교 수정관 4층 대강당은 차인들로 가득 찼다.

천병식 회장은 심포지엄 인사말을 통해 "한국 차학회가 한국 차문화 발전을 위해 1년에 두 차례씩 개최하는 차학술 심포지엄은 차에 관한 과학적·문화사적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20여 편의 논문을 통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내실 있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국 절강대학 차학과와 리양 옹 교수와 인도 북벵갈 농과대학의 문달 교수, 일본 니시큐슈 대학의 미도리 야스다 교수 등이 참석해 논문을 발표했다. 또 전남대 식품공학과 은종방 교수의 '차의 성분과 기능성', 전남

농업기술원 차시험장 김주희 씨의 '한국에서의 차 육종 방법에 관한 연구' 등 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 밖에도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 교수인 선혜 스님은 '조선시대 한국화에 나타난 다례의 유형'을 주제로 한 논문발표에서 그림전에서 선보인 60여 점의 한국화를 통해 차례의 유형을 밝혔다.

▲전시회=18일 개막한 전시회에도 차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성신여대 수정관 1층에 마련된 전시장에서는 신현철

#### 리양옹 교수 등 해외인사 논문 발표

#### 일반인 발길 잡는 전시회 다채

#### 200여명 동시에 차 한 잔 나누기도

(신현철도예연구소 대표) 씨와 이정환 주유요 대표, 천한봉 문경요 대표 등 20여 다기 명장들의 작품 전시회를 비롯해 '차꽃 사진 초대전'이 선보였다. 선혜 스님이 준비한 '조선시대의 한국화에 나타난 한국의 다례' 그림전에서는 '오지연도중헌공다례도(羅池宴圖中獻供茶禮圖)'와 '오지연도중다연향도(茶宴圖)'와 '나한잔다도(羅漢煎茶圖)' 등 불화에 나타난 다례 유형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디자인서 서은주 씨는 차실에서 차를 마실 때 입을 수 있는 웃을 전시한 '우리 웃·차실 북식전시회'를 선보였다.

▲다례발표회=19일 오전 성신여대 잔디운동



▷행사시작을 알리는테이프 커팅.



▷그림전과 다구전시회, 사진전이 열린 전시장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 절강대학 리양 옹 교수가 '중국 차산업 발전'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장에서는 따뜻한 햇살 아래 차 한잔을 나누는 두리차회가 열렸다. 성균관대학 생활과학대학원 생활예절 다도전공 차회와 예지원 차회 등이 참석한 두리차회에는 200여 명의 차인들이 모여 차 한잔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오후 1시부터 특별무대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차례법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는 차례법의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차례법을 선보임으로써 고유의 차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 발표회에서는 한국차문화학회의 규방다례와 한국다도협회의 조선사회규사다례, 한국차인연합회의 생활차례, 불교전통문화원 석정원차회의 풍류생활차례 등 6종류의 차례법이 발표되 눈길을 끌었다.

글=여수영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박재환 기자 jwpark@buddhapia.com

### 선혜스님 인터뷰



"그동안 '차학술심포지엄'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뜻 참가하기 힘든 면이 있었습다. 이번 대회는 학술발표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차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 교수이자 불교전통문화원 석정원 차회를 이끌고 있는 선혜 스님이 '제17회 국제 차학술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차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존 10여 편 안팎이었던 논문 발표를 20여편으로 늘리

###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마련

### '한국화에 나타난 다례' 출간 예정

고 차 관련 그림과 사진, 의복 등을 선보이는 문화행사도 마련됐다.

"발표 논문이 늘어남에 따라 심포지엄이 18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쉴 새 없이 진행됐습니다. 한 차례의 심포지엄에서 그만큼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선보였다는 것은 차문화에 대한 학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한편 스님은 조만간 '조선시대의 한국화에 나타난 한국의 다례'에서 선보인 차 관련 그림 60여 점과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도록을 펴낼 예정이다.



### 우리차

### 수연차



일찍 찾아온 추위에 웃음을 머금게 되는 요즘이다. 차 한잔으로 몸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데는 아무래도 한방차가 제격. '수연차'는 북방과 동충하초, 차전자 등으로 만든 차로, 피로를 풀어주고 당뇨와 고혈압에 효과가 좋다. 소나무 등의 나무뿌리에 기생하는 북방은 강장·이뇨·소화 등에 효능이 있어 활동량이 적은 가을과 겨울에 걸리기 쉬운 소화불량을 해소해 준다. 6포 16만원.(02)732-1520

### 해인사 다경원 가을 차수련회



해인사 승가대학 다경원은 10월 18일과 19일 '2003 가을 차문화 수련법회'를 개최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법회는 18일 오후 1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일주일 압구 언연 스님의 '차문화 강좌', 향기를 찾는 사람 박희준 대표의 '전통향 강좌'가 이어졌다. 이튿날인 19일에는 '불교와 한국의 차실립'에 대한 소설가 정동주 씨의 강의와 가야산 마애불 현대의식이 진행됐다.

매년 봄과 가을에 우리 차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차문화 수련법회를 개최하고 있는 다경원은, 봄에는 곡우에 만든 햇차를 올리고, 가을에는 중앙절에 가루차를 가야산 마애불에 헌다(사진)하는 행사를 펼쳐왔다.

### 명원 차문화대상 시상식 거행



▷유승국 박사 ▷통량 스님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지난 10월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명원 차문화대상 시상식을 거행했

다. 명원 차문화대상은 명원문화재단이 다도발전기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학술상에는 전 정선문화연구원장이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인 유승국 박사가, 공로상에는 쌍계사 승가대학장 통량 스님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 박사는 동서철학사상에 정통한 학자로, 한국고대사연구의 고저적 자료 발굴에 공헌했다. 통량 스님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지리산 칠불사를 재건하고 다신탑비를 세웠으며, <다신전>과 <동다사>, <초의다선집> 등을 역주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생명의 돌, 희담석은 이렇게 다릅니다

###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 오지에서 옛날부터 치료용으로 쓰이던 신비의 돌입니다. 지구 깊숙히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의 일종으로 생체조직에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일한 에너지원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 <희담석 체형사례>

#### '엄마, 제가 어느 대학에 갈지 기대하세요'

희담석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1년 전 하고 1학년이었던 딸은 평소 책상에 앉자마자 12시 넘기기를 핑계로 했으며 졸기 일쑤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개구기 전침을 쳐러야만 했다. 자작한 추석에 두번씩 (희담 방석)을 알게 되어 딸 다리의 퇴색이 없어 놀랐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졸지도 않고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다. 하루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다 딸 딸 아이가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졸지도 않았고 아침에 힘들어 하지 않고 잘 일어나는 것이었다. 잠시 자기 반 32경중 27등 정도였던 딸이이 성적은 (희담 방석)을 사용한 직후 10등으로 솟 올라갔다. 과목중에서는 암기 과목을 제일 힘들어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해 나아갔다. 나라 말에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그후 딸아이는 여러 잠을 잘 때도 희담 방석을 베개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으며, 공부에 대한 열정도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나서 지난 1학기말 고사 성적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해가이 충분했다. 전체 과목 평균 점수가 100점 단점에 95점이 나왔던 것이다. '엄마, 서로 대가난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알았잖아요. 제가 어느 대학에 갈지 기대하세요' 하여 흥분해 하는 딸 아이를 보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희담 방석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이 글을 읽는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희(24세/수험생 어머니,부산중동)

과목	평점	2002년도 1학기 (1학년)	2002년도 2학기 (1학년)	2003년도 1학기 (2학년)	2003년도 2학기 (2학년)
영역	77.82	88.00	88.00	95.80	100.00
도덕	81.88	82.00	88.00	88.80	91.70
수학	60.12	78.80	88.80	87.70	91.40
사회	84.06	88.00	88.00	72.50	86.00
과학	88.21	88.00	88.00	92.00	87.70
체육	96.89	88.00	88.00	96.00	92.00
영어	73.96	88.00	88.00	81.90	100.00
합계	74.67	88.00	88.00	91.90	91.30
				95.70	100.00
				100.00	96.00
				80.00	9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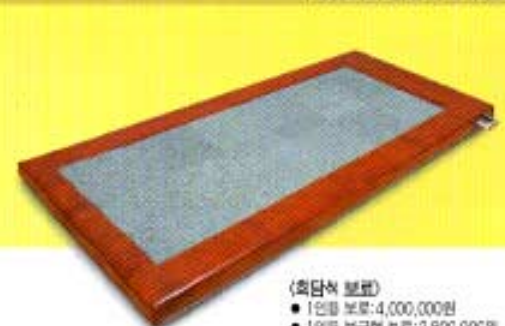
#### '엄마, 정말 공부가 재미예요.'

일 년 전 손바닥 크기의 희담석 지킴이를 선물받았다. 해리가 아플 때 한번 대 보았더니 한두 시간 지나자 요통이 사라지는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138,000원  
 \* 색상: 연두색, 실구름

미하몰이 수험생에게 추천하는 상품



(희담석 베개)  
 \* 1인용 베개: 4,000,000원  
 \* 1인용 보조베개: 2,800,000원  
 \* 2인용 희담석 베개: 3,300,000원

게 보통 돌이 아닌가 보다 싶었다. 그후 희담석으로 만든 방석이 나왔다고 해기에 한 개 구입하여 고등학생 아들의 방에 걸어주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문득 '엄마, 정말 공부가 재미예요.' 하는게 아닌가! 이유를 물으니 희담석 방석 위에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머리가 선명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중이 잘 킁고 하였다. 그후로도 성적은 올라 갔으며 지금도 꾸준히 성적이 오르고 있는 중이다. 모두 희담석 덕분이라 생각된다.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꼭 한번 써 보실 것을 자신있게 권한다. 강태숙(43세/어, 수험생 어머니, 일산)

####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나는 백혈병과 무병중이며, 이틀에 한번씩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마시는 분은 어서였지만 주사 맞고 난 다음날 백혈병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무연히 희담석 보료를 구입한 후, 주사를 맞고 희담 보료 위에서 하룻밤을 자더니 이상하게 통증이 없었습니다. 의학자지만 다음날 다시 주사를 맞았고, 그리고 희담석 보료에서 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러온 중 희담석 보료를 한번 시험해 보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후 4개월 동안 백혈병에 대한 어떤 약도 먹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도 중단한 채 오로지 희담석 보료에서는 잠을 잤습니다 (백혈병 환자는 약을 끊을 경우 대부분 1달 정도 되면 병원에 실려 간다고 합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왔고 호파를 본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혈구의 수치가 병원에 다녀와 약을 먹었던 당시의 수치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담석 보료에서 자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김기주 (51세/남,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물 안 가득히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다."

"늘 활력 나는 불사를 앞두고 건강을 회복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실패하면서. 특히 평소엔 물을 꼭 마시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건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연히 희담석 보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잠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잠이 보약'이라고 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숙면을 취한 기분인지 몸 안 가득히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다. 희담석 보료를 사용한 후 약 6개월이 되었다. 물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희담석 보료가 있기에 그 큰 불사를 대려없이 치러내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스님, 경남)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